

청소년의 꿈이 자라는
'씨앗컴터'

#인천 부평구 #청소년 특화

청소년인문학 도서관 두잉



실천하자!

'두잉'은 Do와 ing를 합친 것으로 도서관을 처음 만들 때 함께했던 청소년들이 존 홀트『학교를 넘어서』 책에 근거하여 '실천하자'라는 의미로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청소년'들이 '인문학'을 통해 질문하고 성찰하다

두잉은 청소년들이 인문학을 통해 질문하고 성찰해서 더 나은 삶과 공동체를 위해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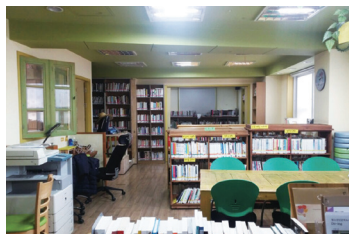
건강한 시민

두잉은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고 생동감 넘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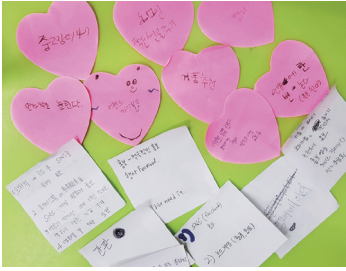
특화지원사업과 함께한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 잉의 2017년은 어떠했나 요?

일상적으로 청소년을 품기 위해 공간에서부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던 차였습니다. 두잉 도서관은 2009년 12월, 청소년 대상의 특화도서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원 사업 신청 당시 실무자인 저는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도서관 활동가로 청소년독서토론동아리활동, 청소년자치활동 등 사업을 정착, 확대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도서관이라면 청소년 프로그램과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이용자인 청소년이 주인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 공사 전 도서관 내부

그래서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의 꿈이 자라는 씨앗밭터’를 가꿨습니다.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이 책, 친구, 멘토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싹을 틔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동네 청소년들이 두잉을 알고 편하게 찾아오게 하기 위해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북카페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도서관을 홍보했습니다.



이는 도서관 공간과 활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의 정형화, 청소년 동아리, 참여 조직을 만드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더 많은 청소년들을 품기 위해 나서야했습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꿈꿔보지도 못했던 리모델링이었지만 청소년과 도서관의 가치에 맞는 공간 구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즐거운 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청소년입니다. 두잉에 바라는 점에 대해 이용자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운영진의 몫이었습니다. 높은 도서관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인 '카페'에 착안하여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예산을 고려하여 시공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사업을 추진하려했던 업체와의 협력이 무산되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도서관'에 대한 전문성,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시공업체를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더구나 적은 사업 금액에 뛰어드는 건축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협의'를 최우선 조건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업체를 만나 우리가 바라는 구상을 전달했습니다. 공간을 임대하기 때문에 이사 가능성이 있기에 대형공사나 불박이형 공사를 피했습니다. 무엇보다 도서관을 이용할 청소년들을 상상하며 가구 재질, 강도 및 천 재질 하나까지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참고할 만한 청소년도서관 사례가 부족했고, 한정적인 공간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계획했던 많은 부분이 물리적, 재정적 조건으로 제작 공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더욱 난감했습니다. 장서와 물품 등을 정리하며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지만 공사를 진행한 후 바뀐 도서관 모습을 보고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운영진, 청소년들과 함께 장서를 정리하고 북카페청소년사업단 청소년들과 북카페 조성을 위한 물품 구입 및 배치, 각종 꾸미기 및 오픈행사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공사가 커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획보다 북카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도서관이 아닌 ‘북카페’로 정체성을 달리해야하나 고민에 놓였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깔깔깔’도서관과의 컨설팅 및 인문학 강좌를 듣고 고민을 해소했습니다. 깔깔깔도서관의 컨설팅은 청소년들을 대하는 활동가의 입장과 원칙을 되새기고 저의 생각과 행동을 성찰하는 계기였습니다. 깔깔깔의 운영을 보며 우리 북카페의 정체성, 청소년 대상의 장서와 북큐레이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 공사 후 도서관 내부

마침내 두잉은 특화지원사업을 통해 숙원사업을 해결했습니다. 귀신 나올 것 같던 외벽 썬팅을 철거하고 간판과 배너 등 홍보물이 생겼습니다. 공간이 좁아 덩치 큰 남성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남자화장실, 찬바람이 드나들던 베란다문, 불박이 책상으로 사람들 이동이 어려웠던 세미나실, 높이 문제로 관리자의 허리를 괴롭게 했던 불박이식 관리자 테이블 등 도서관 공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다시 구축하여 온라인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상상으로 시작한 리모델링과 우리를 돌이켜보았던 컨설팅 이후 두잉은 훨씬 생동감 있게 변했습니다.

버겁고 힘들어도 버티고 노력할 수 있었던 힘은 청소년들과의 만남에 있었습니다. 7개월 차에 들어서던 쌍둥이가 아픈 와중에도 시공업체와 미팅할 때, 병실에서 아이들이 잠자는 틈틈이 일하면서, 새벽까지 폐기도서 정리를 하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속상해서 원망, 자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공사가 끝난 후 '와'하고 눈이 동그래져서 들어오는 청소년, 친구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청소년들, 편하게 쉬는 청소년, 시소카페 기획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40만원어치 짐을 웃기게 짊어지고 오는 북카페사업단 청소년들, 팝업북 존에 눈을 번뜩이며 왁자지껄 청소년 서가를 꾸미던 청소년들.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활동하며 행복했습니다.



두잉의 이용자와 마을 주민들도 두잉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러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공간이나’ 물어보는 주민분도 계시고, 청소년 행사나 독서모임에 참여를 문의하는 청소년들도 늘었습니다. 평소 이용하셨던 이용자들도 두잉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프로그램이나 모임 때만 보이던 청소년들은 이제 일상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머무릅니다. ‘접근성이 높으면 좋겠다.’, ‘많은 청소년들이 두잉을 알았으면 좋겠다.’, ‘온라인 홍보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두잉은 어떤 도서관인가요?’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사업 이후 실무자의 오래된 고민이 해소되었습니다. ‘왜 작은도서관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었는데 도서관의 필요성, 활동의 내용, 북카페의 정체성, 목표를 향한 개별사업의 정렬 등에 대한 저의 답(두잉은 ‘청소년이 주인인 공간으로, 인문학을 매개로 질문, 성찰, 토론하며 실천하는 10대 시민의 광장’입니다.)이 생겼습니다. 독서모임이나 청소년조직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졌던 욕심과 지나친 개입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는 즐거웠고 청소년들은 적극적인 활동과 책임 의식으로 답했습니다. ‘청소년과 함께여서 행복하다’는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 인의 2018년은 어떠한 가요?

청소년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공간을 재정비한 후 처음 방문하는 청소년, 친구를 데리고 오는 청소년들이 많아졌습니다. 열람실을 북카페로 조성하면서 시설도 더욱 편해지고, 바뀐 조명으로 공간이 밝아지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처음 오는 청소년들이 도서관 이용을 어려워하지 않고 간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생겼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편견으로 프로그램에 친구를 데리고 오기 어려웠던 청소년들이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놀러왔습니다. 도서관을 찾아와주는 이 아이들이 도서관과 책과 모두 친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눈높이로 바라볼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읽혀지는 책’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어가고자 하는 도서관 가치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책들로 장서를 정리하고 북큐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도서선정위원회와 함께 팝업북 존과 청소년서가를 만들고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추천도서를 전시했습니다. 도서관 곳곳에 주제별 책 전시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꽂혀만 있던 책들이 청소년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모임 및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독서와 토론, 질문과 성찰’이라는 도서관의 방향과 우리 곁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려 합니다.

특화를 고민하는 다른 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도서관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 목표가 분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근거한 도서관의 공간 구성, 프로그램 및 사업, 장서 및 북큐레이션이 일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특화를 통해 이루고자하는 목적이 명확하고 특화가 도서관 곳곳에서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작은도서관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사업체와 다릅니다. 청소년들이 카페가기 좋아해서 카페로만 리모델링한다거나 청소년의 흥미로워하는 주제(축제나 진로 등)로 프로그램만을 진행하는 것에서 끝나선 안됩니다. 이 모든 활동이 독서공동체 형성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참여와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소년특화일 경우 청소년공동체를 형성하는 활동가의 가치관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잠재력을 가진 시민입니다. 플랫폼으로서 청소년의 이익을 고민하고 그들이 삶과 공동체의 주인답게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도서관답게 특화도서관을 꿈꾸는 활동가들을 응원, 지지합니다.

**특화를 고민했던 두잉
활동가들 스스로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한계 속에서도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 온 관장님과 운영위원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두잉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이 되어서도 두잉에 대한 애정을 잊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노동을 기꺼이 내준 청년 서포터즈들의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예상되는 어려운 길을 묵묵히 책임지며 가겠다고 결심한 사)내일 운영자분들, 감사합니다.

